Global Focus

국제노사관계학회 제5차 아시아 지역대회의 성과

- 노사관계의 인식 지평을 넓히고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계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열린 국제노사관계 아시아지역대회가 아시아·태평양 각국을 비롯한 세계 30여 개국에서 450명의 국내외 학자, 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조합 관련인사, 관련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비록 언론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으나 노사관계, 노동경제학, 노동법을 아우르는 노동관련 학계의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각국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학술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로 기억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석한 외국학자들도 행사의 진행, 학술대회의 내용과 수준 등이 매우 알차고 좋았다는 점에서 칭찬 일색이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용관계의 역동성과 다양성"이라는 큰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지난 20~30년간 겪어온 빠른 산업화와 경제적 전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명해 보자는 취지 아래 계획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래와 같은 4개의 중(中)분류 주제별 8개의 트랙(분과)으로 세분화되어 총 35개의 주요한 소(小)주제별로 각각의 워크숍에서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용관계의 새로운 패턴
- 세계화와 IT 혁명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
- 노동과 사회 문제들(비정규직과 여성노동 중심)
- 노동시장과 인력이동(국제노동이동)

학술대회 행사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미국의 피터 도린저 교수가 '노동시장 유연화와 내부자 효율성'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된 강의를 통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의 성격과 그 특징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주었다. 또한 행사 전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과 조직의 노사 실제담당자(practioners)들로부터 직접 노사관계를 들어보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학술대회 후 프로그램으로는 공공노동연구기관들이 모여서 '세계화, 기술변화와 양질의 고용(decent work)'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노동규제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특별회의를 열어 이들 기관들의 공동연구 관심사를 논의하는 한편 제1차 세계노동포럼을 만들어 연구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도 대회 후 프로그램으로 박사과정 학생과 박사학위를 마친 예비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저널에 기고하는 법 등을 소개한 워크숍과 노동자들의 참여,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그룹 모임, 자동차와 은행산업에서 세계화와 고용관계에 관한 워크숍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 다수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소주제를 다루는 워크숍들이 많았으나 중복 진행되거나 혹은 2~3일 동안 집중적으로 동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워크숍마다 논문 1편당 시간이 10~15분 정도로 할당되어 있는데다 발표논문이 많아 내용을 발표할 시간도 적었고 발표 뒤 토론시간도 매우 적어 필요한 학술토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도 아쉬웠다.

특별히 미국과 호주에서 노사관계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좋은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학술대회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 인도를 제외하고는 산업화의 초기 단계를 반영하여 노동문제가 주요한 사회이슈로 등장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이제 시작되어 노사관계 논문의 질과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노동관련 학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공동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인 분석과 견해를 교환한 것 자체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학술행사였다.

한국에서 모처럼 개최한 국제학술 대회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명이론을 적극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과 성대한 국제학술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에 국내 언론의 관심이 부족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한국에서 참여한 학자들이 아시아지역 국가의 노사관계, 노동시장 관련 학자들에 대한 보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